

“100년 진안 미래 완성할 것”

전춘성 예비후보, 민선 9기 진안군수 출마 공식 선언



전춘성 예비후보

전춘성 예비후보(진안군수)는 23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진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선 8기에서 다진 초석 위에 민선 9기의 찬란한 꽃을 피우겠다.”고 밝히며 “준비된 변화가 확실한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완성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군민기본소득을 시작으로 한 진안형 기본사회 완성, △돈 버는 농업·활력 넘치는 농업경제 실현,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글로벌 생태건강치유 도시 도약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공약인 ‘진안형 기본사회 완성’과 관련, 전 전 군수는 군민기본소득 지급을 출발점으로 삼아 주거·

의료·교육·통합돌봄·교통 등 군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진안에 산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태어나서부터 노후까지 걱정 없는 실질적 기본사회의 표본을 진안에서 완성하겠다.”며 “삶의 질 만족도가 대한민국 최고인 진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약인 ‘돈 버는 농업·활력 넘치는 농업경제 실현’에 대해서는 생산·가공·유통·판매의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특화작물 확대 지원과 ICT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유통·일손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진안의 청정 농산물과 인산물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민이 농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진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공약인 ‘글로벌 생태건강치유도시 도약’과 관련해서는 진안고원의 천혜 환경 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명품 치유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에서 준비한 ‘진안 방문의 해’와 ‘도민제전’의 성과를 이어받아 ‘머무르는 관광’ ‘돈이 되는 관광’ 스포츠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산악관광 진흥지구와 연계한 대규모 민·관 투자를 이끌어내어 전복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의 주요 성과로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 확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예정),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진안읍 웰빙지구 도시확장계획 및 화천지구 복합문화공간 추진, △진안군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추진 등을 소개하며, “민선 9기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민선 9기는 지속적인 안정적인 군정운영이 필요한 완성의 시기”라며 “진안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정부와 전북도를 설득해 예산을 가져올 3선의 힘 있고 능력 있는 군수, 일 잘하는 든든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던 그 초심 그대로 뛰겠다.”며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AI 확산 차단’ 대응체계 가동

장수군, 산서면 오리농가 AI 발생 따른 선제적 방역 조치 강화

장수군은 최근 군 관내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인근 가금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면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긴급방역대책회의는 이정우 장수부군수와 축산·환경·안전·보건 등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AI 발생 경위와 현재까지의 방역 조치 상황을 공유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군은 최근에 발생한 AI가 산서면 일원에서 발생한 만큼 인근 가금류 농장



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현장 통제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방역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즉각 가동하고 나섰다.

군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대해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

라 이동제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주요 진출입로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장수군보건요원을 중심으로 인체감염 대응반을 운영해 살처분 참여자 및 축산 관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농협네트웍스,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농촌 체험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협네트웍스와 협력에 나섰다.

무주군은 23일 농협네트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체험마을과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판매를 공동 추진하

기로 했다.

협약은 유엔 세계관광청이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관광 수요로 연결하고 농촌체험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네트웍스는 전국 단위 여행 상품 개발과 홍보·판매를 공동 추진하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와 판매에 나서 계획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무주군은 23일 푸디스트(주)와 농산물 통합마케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상생협력

무주군-푸디스트, 판로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무주군이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디스트와 상생협력에 나섰다.

무주군은 23일 푸디스트(주)와 농산물 통합마케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성하 푸디스트 F&B부장을 비롯한 농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무주 농산물 판로 확대를 비롯해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관광 및 축제 공동 홍보, 지역 인재 채용과 청년 창업 지원, 사회공헌 및 ESG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

력하기로 했다.

특히 푸디스트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무주 농산물의 전국 판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덕유산 휴게소 운영과 연계한 지역 인재 채용과 청년 창업 협력도 추진해 지역 상생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품목과 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전국 급식처와 식당을 대상으로 무주 농산물 출하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군, 통합돌봄 제공기관 8곳과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은 23일 군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일상생활 돌봄 등 통합돌봄 제공기관 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희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장수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장수시니어클럽, 더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백세동안재가노인복지센터, 말발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긴급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수지역자활센터와 미성건축, 그린의료기는 대청소 및 소규모 주거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간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수시니어클럽은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말발기노인복지센터, 더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백세동안재가노인복지센터는 청소·세탁·식사 준비 등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긴급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수지역자활센터와 미성건축, 그린의료기는 대청소 및 소규모 주거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간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진안군은 전춘성 군수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23일부터 이경영 부군수가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체제 전환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은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을 대행한다.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방향을 공유하며 행정 공백 없는 군정 운영을 강조했다.

대행 기간 중 △민생 안정, △각종 안전·재난 대응, △주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 △공직 기강 확립 및 선거준비의무 준수, △진안방문의 해·전북지도 안대제전 준비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행정과 각종 대민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군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정당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23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총 15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무주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를 차분히 정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로 마무리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